

‘제1회 인구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받은 송기진 광주은행장

“출산장려 덕택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다자녀 특별승급’ 등 가족친화 경영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박차”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닌 광주은행 전 임직원들의 영예입니다. 사람은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저출산 해결 문제는 기업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11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저출산 해소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인신과 출산,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육아문제 등 직원들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보육 시설 운영과 출산장려 등 저출산 극복에 노력했다. 그 결과 광주은행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0.61명 많은 1.85명이 됐다”고 훈장을 받은 배경을 밝혔다.

송 행장은 이러한 기업문화 확산

을 위해 전남대학교 앞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설치해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획기적인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취임 후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기업구성원의 행복에 은행이 동참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파격적인 가족친화경영을 펼쳤다”며 “직원들의 애사심 증대로 금융권평균 대비 8배나 낮은 퇴사율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서 ‘High Earning Surprise’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행장은 셋째 출산시 1호봉, 넷째는 2호봉, 다섯째는 3호봉을 특별승급시켜주는 ‘다자녀 출



산직원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했다. 또 금융권 최초 육아휴직중인 직원 간부 승진과 급여·복지·승진·보직 등에도 남녀 차별 없는 인제 중용 및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해 지역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 행장의 특색있는 ‘가족친화경

영’은 지난해 8월 ‘2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대통령 표창, 11월 광주전남 첫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으며 4월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5월 여성가족부 주관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우수기업에 선정 되는 등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송 행장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경영진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주은행은 미진한 부분을 더욱 개선하고 타 기업 우수사례를 수용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행장은 “‘일·가정 양립’의 기업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조합원 67% 찬성...13·20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아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남부터 이틀간 광주·화성·소하리 공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의 67.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공정별로는 광주공장이 재적 조합원 71.0%가 찬성,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소하리공장은 70.5%, 화성 66.3%, 정비 64.4%, 관매 60.4%의 찬성률을 보였다.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 파업 여부는 조만간 정의대체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기본급 대비 8.3%)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간 연속 2교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 등 물량만 회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관내 14개 세무서장, 지방청 국 과장 참석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해야 할 일 잘하는 광주청 만들자” 광주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인사에 따른 새로 부임한 서장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갖는 한편 올 국세행정 운영방

향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속적 세수관리 및 미정리 체납액 축소,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효율적 추진, 하반기 조사 관리 등 소관별로 주요 현안업무를 시달했다.

서국환 청장은 “상반기 세수진도비 및 체납정리실적이 대체로 양호하다”며 “하반기에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목표로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3분기 2000만명 돌파

올해 스마트폰뱅킹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 손안의 휴대전화로 은행업무를 보는 시대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성정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전용 상품을 속속 내놓고 금리 혜택을 주는 등 손님을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농협(지역농협 포함) 등 7개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동일인 중복가입 포함)는 약 1596만명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스마트폰 기반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는 지난해 4분기 말 1035만8000명에서 올해 1분기 1366만6000명으로 331만명(31.9%)이나 늘었다. 이 추세를 감안하면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는 올해 3분기에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뱅킹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은행들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연필뉴스】

‘광주 클러스터·금융의 만남’ 행사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금융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12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산단공 호남권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산업단지 클러스터 회원사 70개사 대표와 12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주 클러스터와 금융의 만남’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단공이 클러스터 회원 기업과 지역 금융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했다.

기업 금융 사례 발표는 광주 클러

스터 회원사인 가람이앤씨 김성수 대표와 한빛금융도리인 장광호 대표가 맡고, 이어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현장 금융상담도 연다.

김경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단공이 기업과 정부, 금융과 기업이 있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6월 실업률 소폭 하락

광주·전남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6월 광주·전남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6월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11.1%) 줄었다.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6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명(0.1%)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3000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70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5000명)가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5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명(0.1%)이 줄어든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17만4000명으로 2000명(0.9%)이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1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2.5%)이 증가했다.

전남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34.4%) 줄었고, 실업률은 1.1%로 0.6%포인트 하락했다.

6월 고용률은 광주 56.4%, 전남 64.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와 0.3%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광주 7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명(0.2%) 줄었고, 전남이 94만4천명으로 8천명(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소비자원 1500개 금융사 대상 근저당비 반환 소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 지

방은행,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손보사,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이 지원하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코스피지수	1,826.39 (-3.06)
코스닥지수	491.93 (-0.41)
금리 (국고채 3년)	3.19% (-0.03)
원·달러 환율	1,140.90원 (-2.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분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업
원래의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약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 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들어서 물이 빠져서 원상복구된다. ※ 상이 목욕 도를 및 이리저리 도를시 개발중이므로 법적 고충이 없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로만 집안에서는 뭣건뭣건도 인내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 새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 김공주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처리도 시공을 했음에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밀고 들어오면 첫째, 선풍기나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오면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밀고 들어오면 배수도 두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일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준음-

한능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